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7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6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청년 시절에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사명감과 행복감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박덕우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기 전에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불신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전도는 교역자님과 구역장님들의 몫이고 주중예배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를 귀찮아 하고 예배를 피곤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영역 밖에 모셔 두고 있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군복무를 하는 중에도 저의 이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복학하여 공부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극한 공허감과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생경한 감정에 저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저의 태만한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설교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 전에 다니던 교회의 사모님이 대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던 저에게 한 선교모임에서 봉사하도록 권면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에 대하여 하나 둘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구령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생기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하여 기도하던 중에 대학교 학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학과 동기와 선배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없던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였다니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전도대상자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영혼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 더욱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며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저는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와 봉사와 전도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성도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였다면, 이제는 그 이상으로 신령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때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편향된 많은 언론보도와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직접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다윗의 신앙을 생각하며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십일조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면 성도의 의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그 동안 저는 이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

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라의 앞날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여 주일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면서 청년봉사선교회와 북한선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과,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과 통일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과 현상을 성경으로 바라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진실 편에서 서서 기도하고 행하기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며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해주신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낙심 대신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하여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선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듣고 회의와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나라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시국과 관련하여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중에서도 국가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더 열심히 예배 중심, 말씀중심, 하나님중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길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명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운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2단원 : 죄지은 인간의 실상) (제6과) 노아 홍수의 심판

- 본문 : 창세기 6장~8장
- 요절 :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 7:5)
- 찬송 : 379장(새찬송가 204장), 399장(새찬송가 546장)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대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도록 명하시고, 이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 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이르렀던 그 당시의 죄악상과 홍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 구원 얻은 노아의 신앙 자세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1.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과 홍수 심판의 경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시고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그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셋의 후손들도 점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창 6:1,2).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좇아 세상 향락에 젖게 되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창 6:5,6), 죄악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여 사람을 비롯한 천하의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의 경건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여 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창 6:8,9).

2.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

앞으로 120년 후에 있을 홍수의 심판(창 6:3)을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미리 준비하도록 명하시고, 방주의 크기와 구조를 자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잡나뭇마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짐승을 넣을 간들을 만들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창과 문의 위치와 방주 안을 삼 층으로 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창 6:22).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히 11:7).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역사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완성시켰습니다.

3. 홍수 심판의 과정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미리 경고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창 7:4)고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등 노아의 식구 8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칠 일간의 여유를 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칠 일 후에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창 7:16),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깊은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창일하여 높은 산까지도 덮이니 사람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오직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여 있다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걷히고, 2월 27일에는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던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이끌어낸 후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래에도 그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 9:11)고 말씀하시며 구름속에 무지개를 두어 그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4. 노아 홍수 심판의 교훈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노아를 심판 중에도 구원하셨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택하신 노아에게 심판을 미리 알려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택하신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넷째로, 노아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 멸망을 면했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이 더딘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벧후 3:9,10).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